

파룬궁 박해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 집중

[명혜망] 미국과 대만이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종교자유 수호 시민사회 대화'가 2019년 3월 12일 폐막했다. 이 회의는 2018년 미국 국무원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첫 번째 '종교자유 촉진' 장관급 회의의 연장이다.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파룬궁 수련생 대표 7명은 미국 종교자유 대사와 모든 참석자를 향해 중공이 파룬궁을 상대로 자행하는 전대미문의 사악한 박해에 대해 진술했다. 내빈들은 중공의 잔인한 파룬궁 박해를 분명히 깨닫고 관심을 표명했다.

미국 국제 종교자유 대사 브라운백은 11일, NTD TV에 출연해 파룬궁 등 박해를 받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는 영혼이 신념을 견지하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라며 말했다. "지구상에 수많은 마난이 있지만,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속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바른쪽에 서 있고, 여러분이 옳으며,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종교 원탁논단 이사장, "국제단체는 파룬궁과 함께 할 것"



미국 국제 종교자유 대사 브라운백은 12일, 중공의 심각한 인권박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것이며, 심지어 관리를 개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짓을 한 개인에게 후과가 따를 것입니다."

파룬궁 집단이 장기간 중공의 박해를 받고, 심지어 생체 장기적출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제 종교자유 원탁논단(IRFR) 이사장 미첼이 말했다. "지금(박해를) 중지시킬 때입니다. 이런 일은 하루조차도 너무 과분합니다. 이런 박해가 뜻밖에도 2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올해 3월 4일, 티베트인, 위구르인, 기독교도와 파룬궁 수련생 등이 포함된 10여 개의 종교, 인권단체는 미국에서 '중국 종교자유 촉진 연맹'을 설립했다.

미첼은 이렇게 말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연맹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우리는 공동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국제 인권단체, 비정부 조직, 신앙 집단이 모두 파룬궁 수련생과 같은 편에 서서 어떻게 협력할지를 살피고, 중국의 박해행위를 저지할 것입니다."

영국 보수당 인권 지도자, "지금(박해를) 중지시킬 때"

전 세계 기독교 단결연맹 동아시아 부문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회장 로저스는 말했다. "제가 중국에 대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겨우 인민의 신앙을 중지시키기 위해 그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대혁명 후, 파룬궁 수련생, 기독교도, 티베트인 등등 여러 신앙을 가진 중국인이 가장 심각한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다. "지금(박해를) 중지시킬 때입니다."

퇴직한 검찰청장이 진상을 알고 통쾌하게 탈당하다

[명혜망] 갈수록 많은 중국 민중이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국외 탈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퇴직한 성 검찰원 모 처장이 진상을 듣고 기쁘게 탈당하다

[대륙 투고] 며칠 전, 나는 공원에서 아주 기품 있는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를 만났다.

몇 마디를 나눠 보니 그는 성 검찰원의 모 처 처장이었고, 군인 출신에 퇴직한지 5년이 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또 동향인이었다. 그는 나에게 나이를 물었고, 나는 80여 세라고 대답했다. 그는 놀라워하며 말했다. "제가 보기엔 70여 세인데, 수행으로 복을 받으셨나요?" 내가 말했다. "동생 말이 맞아요. 나는 파룬궁(파룬파파) 수련으로 복을 받았어요. 나는 과거에 직업상 몸이 좋지 않아서 만성 전립선염, 뇌 혈액공급 부족, 위궤양, 오심전 같은 여러 질병이 있었는데, 파룬궁을 수련하니 전부 나아졌어요. 지금은 감기에도 안 걸리고, 온몸에 병이 없고 가벼워요."

내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장쩌민이 "때려 죽여도 그만이고, 죽으면 자살로 치며, 신원을 밝히지 말고, 직접 화장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하자 그가 말했다. "제가 퇴직 전에 한번은 감옥에서 일을 했는데, 선글라스를 쓴 감옥 경찰 두 명이 파룬궁 제자를 모집해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폭도였고, 죽기 살기로 때렸는데, 잔인무도했습니다! 제가 감옥 책임자한테 이렇게 때려도 되느냐고 물으니 도리어 그는 전향을 안 하는 파룬궁 수련생한테는 이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말했다. "전국의 노교소, 감옥, 소년원, 세뇌반 등등 소굴에서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만 4천여 명이에요!" 그가 말했다. "정말 별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감옥 경찰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 걸 보면 정말 응보를 받은 겁니다."

내가 말했다. "공산당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하늘이 중공을 멸하게 됐는데, '3퇴'를 해야만 평안을 보전할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저는 일찍이 탈퇴했습니다. 퇴직 후로 조직 활동에 참가한 적이 없고, 당비도 안 내서 자동 탈퇴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신을 향해 탈퇴해야만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신이 당신을 보호해 줄 거예요." 나는 또 말했다. "동생, 내가 가명을 지어 줄 테니 인터넷에서 탈퇴하고 평안을 보전하세요." 그는 기뻐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돈도 안 들이고 평안을 보전하네요." 나는 그에게 위협이 닥쳤을 때 벗어날 수 있도록 "파룬파파 하오(法輪大法好), 찌란런 하오(真善忍好)"를 외우라고 신신당부했다. 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저는 신을 믿습니다."

"나는 정단급..., 나를 탈퇴시켜 주세요."

[산둥 투고] 내가 밖에서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는 진상을 알리다가 한 중년 남자를 만났는데, 뜻밖에도 그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친구가 시간 있을 때 길에 나가 산책을 하라고 했어요. 친구가 홍콩에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여러분을 만나게 됐네요. 이번에 저는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았어요. 나는 정단급(正團級)이고, 여기에 출장을 왔는데, 당, 단, 대에 모두 가입했어요. 저를 탈퇴시켜 주세요."

파룬궁은 나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었다

[산시 투고] 나와 내내는 대학 동창인데, 우리는 졸업 후 같은 회사에 들어갔고, 5년 후 결혼해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렸다.

순식간에 3년이 지났고, 장인 장모님은 손자를 가지라고 성화를 부렸다. 내가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아내의 자궁 속에 근육종이 있어 즉시 수술을 해야 했다. 의사는 수술 후에 임신 능력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내내는 바로 절망에 빠져 날마다 눈물로 얼굴을 적셨고, 병도 낫지 않았는데, 새로운 병까지 얻었다. 내내는 배가 부풀고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 내가 장기 휴가를 내어 아내를 데리고 의사와 약을 구해 사망으로 뛰어다녔지만,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 생활은 걷어낼 수 없는 그늘로 덮였고, 우리는 고통 속에 나날을 보냈다.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갔다. 나는 어머니에게 아내의 병세를 말씀드렸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어머니가 말했다. “오직 파룬파와 사부님만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너희들이 이전에 ‘3퇴’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파룬파와 하오, 찌싼런 하오’를 정성껏 외우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거야.”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모두 옳아. 어머니는 원래 심장병, 골절증식, 류머티스 관절염에다 여러 가지 병이 있었고, 어느 병원에서도 치료를 못했는데, 나중에 파룬궁을 수련하고는 모든 병이 나았고, 지금 활력이 넘치셔.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알려준 ‘파룬파와 하오’를 잊을 수 있겠어?”

나와 내내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파룬파와 하오, 찌싼런 하오”를 한 번, 또 한 번 외웠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홉 글자를 외우자 아내의 배가 부풀지 않아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몸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다.

새해가 되어 우리는 직장으로 복귀했고, 여전히 날마다 잊지 않고 “파룬파와 하오, 찌싼런 하오”를 정성껏 외웠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아내가 불편을 느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는 나에게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당시 격동되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2014년 말,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하고 귀여운 사내아이였다. 현재 아들은 이미 다섯 살이 되었다. 우리 대가족 식구 16명은 자비롭고 위대하신 리홍즈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글: 리위안)

‘텐안먼 분신자살’은 조작극



● 2001년 8월 14일, 유엔 회의에서 국제 교육개발기구는 ‘텐안먼 분신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공 당국의 ‘국가 테러주의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영상 분석 결과 정부가 사건 일체를 연출했음이 드러났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휘발유가 연소할 때 화염의 온도는 섭씨 500도 이상인데, 이런 고온에서 CCTV 화면 속의 왕진둥(王进东)은 태연하게 앉아 있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 담요를 들고 옆에서 대기하다가 왕진둥이 카메라를 향해 구호를 모두 외친 후에야 그의 몸에 덮었다. 이것이 연출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중공은 안정유지비를 정말 줄일 수 있는가?

[명혜망] “안정은 일체를 압도하는 임무다.” 이것은 중공 총리가 올해 중공 ‘양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드러낸 가장 핵심적인 정보다. ‘안정(穩)’과 ‘위험(風險)’ 두 단어는 이 보고서에 각각 73번과 24번 등장했다.

한편 올해 중공 정부가 발표한 공공안전 지출은 1,797.8억 위안으로 작년의 2,000억 위안보다 적었고, 국방비 예산 1조 1,900억 위안의 15% 정도였다. 그러나 <21세기 경제보도>가 똑같은 정부 발행의 속칭 ‘도해, 국가 장부’의 통계를 인용한 데 따르면 공공안전 지출이 올해 23조 5,244억 위안인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의 5.9%, 즉 1조 3,900억 위안으로 국방비보다 더 많았다.

오랫동안 중공의 안정유지비를 추적해온 홍콩 침례대학 신문과 고급강사 브루스 루이가 중공의 안정유지비 총지출을 밝혔는데, 사실 세 덩어리로 구성되며, ‘중앙의 본급’ 안정유지비를 제외하고도 ‘지방에 대한 중앙의 재정 보조’ 안정유지비, 그리고 ‘지방 예산’ 안정유지비가 있다는 것이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계를 수집한 브루스 루이는 ‘전국 안정유지 총예산’ 중 ‘중앙 본급 예산’이 매년 약 16%에서 17%를 차지했고, 매년 평균 0.275%씩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2018년 2천억 위안인 중앙 본급 예산으로 추산하면 전국 안정유지 총 예산이 1조 1천억 위안을 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쩌민 집단은 1999년 파룬궁 박해를 시작하면서 파룬궁 박해 전담기관인 ‘610’ 사무실을 설립했는데, 그것의 또 다른 악명은 ‘안정유지반(维稳办)’이다. 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은 ‘진(真), 선(善), 인(忍)’을 박해 대상으로 삼았고, 거액의 재정을 투입해 파룬궁을 박해했다. 보편적 가치를 위반한 악행을 저지른 그는 국제사회에서 반인류죄로 기소됐다. 중공은 중앙과 재정부를 통해 각급 재정 부문에 대해 ‘정법 공용경비를 기타 행정사업 단위의 배 이상으로 올리고’, ‘정법기관 편제 내의 인원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공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등등을 억지로 관찰시켜 대량의 경비를 직접 파룬궁 박해에 이용했다. 저우용강이 정법위 서기로 있는 동안 끊임없이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력을 확충했으며, 국내 안정유지를 위한 무장경찰 부대 규모를 단번에 군대에 근접하게 만들었다.

1999년 7월부터 2019년까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중공은 ‘진, 선, 인’ 신앙을 잔인하게 박해하면서 사회도덕 전체를 급속하게 후퇴시키고, 법률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권력이 사회 각층을 점점 타락시키도록 방치했다. 권력이 이익을 해치는 정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각양각색의 집단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중공의 안정유지비가 계속 증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중공은 거대한 민간 자본 지출을 아끼지 않고 이를 이용해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고 정의를 탄압하는 등 악행을 쌓고 쌓아 하늘과 사람을 분노케 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중공을 해체하고, 중공 사당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시키는 것만이 악정과 폭행을 종결짓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중공이 하루라도 더 존재한다면 안정유지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이다.